

【어원 탐구】

地名 語源 몇 가지(3)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물은 흐르는 것이 특성이다. 실핏줄 같은 작은 물줄기가 모여 도랑이나 개울을 이루고 도랑이나 개울이 모여 내를 이루며 내가 모여 강을 이룬다. 이들 각양의 물줄기가 전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 그리고 이들에는 고유한 이름이 붙어 있다.

물론 도랑이나 개울과 같은 비교적 작은 물줄기 모두에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그 수가 너무 많고 또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관심권 밖에 머물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명명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도랑이나 개울 이름이 내나 강 이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그 관심의 정도가 적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 거의 모든 내에는 이름이 붙어 있다. 내는 그 수에서 도랑이나 개울보다 적고 규모 면에서 그들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도랑이나 개울보다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는 내를 기준으로 지역이 나뉘기도 하고 또 농사를 짓기 위해 내의 봇물을 요긴하게 이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은 도랑이나 개울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큰 관심이 명

명 과정에 반영되어 수많은 내 이름을 생성해 낸 것이다.

여기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많은 내 이름 가운데 그 일부를 택하여 그 어원과 유래를 밝혀 보기로 한다.

2

2.1. 가느내

‘가느내’는 ‘가는내’에서 제2음절의 받침 ‘ㄴ’이 동음 탈락한 어형이다.¹⁾ ‘가는내’의 ‘가는’은 ‘가늘-[細]’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가는내’는 ‘가늘고 좁은 내’로 해석된다. 내의 형상에 초점을 둔 명칭이다. 아울러 ‘가느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가는내’나 ‘가느내’에는 ‘細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가느’는 ‘가느내’를 비롯하여 ‘가느개, 가느고개, 가느골, 가느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여 ‘가는’과 같이 ‘가늘고 좁은 형상’을 지시한다.

‘가느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가느내’에는 ‘細川里’나 ‘細川洞’과 같은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2.2. 가르내

‘가르내’는 ‘가르’와 ‘내’로 분석된다. ‘가르’는 동사 어간 ‘가르-[分]’이다. ‘가르매, 가르매기, 가르재’ 등에 보이는 ‘가르-’와 같은 성격이다. 그러므로 ‘가르내’는 ‘갈라지는 내’로 해석된다. 이는 물줄기가 몇 갈래로 갈라지는 내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를 들어 전주시 소재 ‘가르내’는 全州川과

1) 물론, ‘가느내’는 ‘가늘내’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일 수 있다. 그러나 ‘가는내’는 확인되어도 ‘가늘내’는 확인되지 않아서 ‘가느내’를 ‘가는내’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것이다.

三川이 만나 합쳐지는 하천이다.)²⁾ 두 물줄기가 합쳐지는 곳이니 달리 보면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형상이다. 바로 이런 형상의 내가 ‘가르내’이다.

물줄기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 내라는 점에서 ‘가르내’는 ‘갈내’와 조어 관점이 같다. ‘가르내’와 ‘갈내’는 어형이 유사하고 의미가 같다는 점에서 기원적으로 동일한 지명으로 간주된다. ‘가르매’와 ‘갈매’, ‘가르매기’와 ‘갈매기’, ‘가르재’와 ‘갈재’ 등도 ‘가르내’와 ‘갈내’와의 관계와 같다.

‘가르내’는 지역에 따라서는 ‘가리내’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주시 소재 ‘가르내’의 경우도 ‘가리내’와 함께 쓰인다. ‘가리내’는 물론 ‘가르내’의 모음 변화형으로 간주된다. ‘가리내’에 대응되어 있는 ‘雙川’³⁾이라는 한자 지명이 ‘가리내’의 의미를 분명히 증거한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가리-’는 ‘가리골, 가리실, 가리여울’ 등에서 보듯 ‘가르-’와 함께 ‘갈라진 형상’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가르내’나 ‘가리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밭’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3. 가무내

‘가무내’는 ‘감내’로 소급한다. 이는 ‘가무내’가 ‘감내’에 ‘ㅣ’가 첨가된 ‘갸내’와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가무내’는 ‘감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가르내’가 ‘ㅁ’의 영향으로 원순모음화한 어형이다.⁴⁾ ‘가무’는 ‘가무내’를 비롯하여 ‘가무바우, 가무실, 가무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2) 이곳을 ‘가래여울’, ‘楸灘’, ‘楸川’이라고도 한다. ‘楸灘’과 ‘楸川’은 ‘가래여울’이나 ‘가르내’의 ‘가래’와 ‘가르’를 ‘가래나무’로 잘못 파악하고 한자로 바꾼 지명이다.

3) 충북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소재 ‘가리내’에 ‘雙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실제 이곳은 냇물이 두 갈래로 흐르고 있다.

4) 물론 ‘가무내’에는 ‘가문내’에서 동음 ‘ㄴ’이 탈락한 어형도 있을 수 있다.

‘감내’의 ‘감’은 동사 어간 ‘감-[玄]’이다. 그러므로 ‘감내’는 ‘검은 내’의 뜻이다.⁵⁾ 내가 깊어 물빛이 검은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아울러 ‘감내’로부터 변형된 ‘가므내’나 ‘가무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검내, 거무내, 감물내’와 같은 의미이다. ‘가무내’에 대응된 ‘玄川’이나 ‘黑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해서도 ‘가무내’가 ‘검은 물빛의 내’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가무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가무내’는 ‘가무내 못, 가무내방죽, 가무내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이므로 ‘말’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2.4. 고내

‘고내’는 두 종류이다. 그 하나는 ‘골내’에서 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곶내’에서 변한 것이다. ‘골내’에서 ‘ㄴ’ 앞의 ‘ㄱ’이 탈락하여 ‘고내’가 되고, ‘곶내’가 [곶내] → [곤내]로 발음 난 뒤 동음 ‘ㄴ’이 탈락하여 ‘고내’가 된다.

‘골내’의 ‘골’은 물론 ‘谷’의 뜻이다. 그러므로 ‘골내’는 ‘골짜기를 흐르는 내’로 해석된다. 이는 내가 흐르는 장소를 기준으로 한 명명이다. 들판을 흐르는 내를 ‘들내, 벌내’, 산을 끼고 흐르는 내를 ‘피내, 산내’라고 하듯이 골짜기를 흐르는 내를 ‘골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골내’는 ‘고내’만큼은 많이 쓰이지 않는다. ‘고내’의 빈도가 훨씬 높다. ‘골내’가 ‘고내’로 변하면서 ‘고’의 有緣性이 상실되어 ‘고내’의 ‘고’는 더 이상 ‘谷’의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다. 단순히 음이 같은 한자 ‘高’로 이해될 뿐이다. 그리하여 ‘고내’를 ‘높은 지대에 있는 내’로 해석하고 ‘高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높은 내’와 ‘골짜기를 흐르는 내’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5) 물론 ‘감내’는 ‘감’을 ‘大’의 뜻으로 보아 ‘큰 내’로 해석할 수도 있고, 동사 어간 ‘감’으로 보아 ‘감아 도는 내’로 해석할 수도 있다.

‘꽃내’의 ‘꽃’은 ‘강이나 바다, 또는 평야를 향해 좁고 길게 뻗어 있는 땅’을 가리킨다. ‘꽃매, 꽃섬, 꽃재’ 등에 보이는 ‘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꽃내’는 ‘꽃을 따라 흐르는 내’ 또는 ‘꽃처럼 좁고 길게 뻗어 있는 내’의 뜻이다. 그런데 ‘꽃내’의 ‘꽃’을 ‘花’의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꽃이 많은 내’로 해석한 뒤 ‘花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꽃내’로 바꾸어 쓴다. 이는 ‘꽃매’의 ‘꽃’을 ‘花’로 이해하고 ‘꽃이 많은 산’으로 해석한 뒤 ‘花山’이라는 한자 지명을 쓰는 것과 같다.

‘고내’가 ‘꽃내’의 변형이라는 사실은 ‘고내’가 ‘꽃내’와 함께 쓰이는 지역이 있어서 더욱 명백해진다. ‘꽃내’가 ‘꽃내’에서 변한 것이므로 ‘꽃내’와 함께 나타나는 ‘고내’는 ‘꽃내’의 변형임이 분명하다.

‘골내’에서 변한 ‘고내’이든, ‘꽃내’에서 변한 ‘고내’이든 ‘고내’는 내의 이름뿐만 아니라 마을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고내’에 ‘말’을 붙여 ‘고내말’이라 하다가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2.5. 고드내

‘고드내’는 ‘고든내’의 ‘ㄴ’ 탈락형이다. ‘가는내’가 ‘가느내’로, ‘고브내’가 ‘고브내’로 변하듯이 ‘고든내’가 ‘고드내’로 변한 것이다. ‘고든’은 ‘곧-[直]’의 관형사형이어서 ‘고든내’는 ‘곧게 뻗은 내’로 해석된다. 내의 외적 형상에 기반한 명명이다. 여기에 ‘直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잘 어울린다.

‘고든내’에서 변한 ‘고드내’ 또한 ‘곧게 뻗은 내’의 뜻이다. 이에도 ‘直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고드내’의 의미와 정확히 부합한다. 그런데 ‘고드내’는 제2음절의 모음 ‘ㅡ’가 ‘ㅣ’로 변하여⁶⁾ ‘고디내’⁷⁾로 나타

6) ‘ㅡ>ㅣ’ 변화는 지명에서 흔히 발견된다. ‘가르내>가리내’, ‘고등이>고딩이’, ‘너른내>너린내’, ‘너븐등어>너븐딩이’, ‘느르목>느리목’, ‘느즈목>느지목’ 등이 그와 같은 예이다.

7) ‘고디내’가 경북 울진군 온정면 덕산리에서 확인된다. 이곳의 ‘고디내’에는 ‘直川’이

나기도 하고, ‘고디내’는 구개음화에 의해 ‘고지내’⁸⁾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드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고드내’에는 ‘直川里’라는 한자 지명이 함께 쓰인다.

2.6. 곰내

‘곰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곰’을 ‘熊’의 뜻으로 보고 ‘곰이 빠져 죽은 내’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熊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그러나 ‘곰내’의 ‘곰’을 ‘熊’의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곳의 ‘곰’은 ‘곰나루, 곰말, 곰재’ 등에 보이는 ‘곰’과 같이 ‘大’의 뜻이다. ‘곰내’와 함께 나타나는 ‘한내’를 통해서도 ‘곰’이 ‘한’과 같이 ‘大’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곰내’는 ‘큰 내’의 뜻이다.

‘곰내’는 지역에 따라서는 ‘고음내, 고미내’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고음내’는 ‘곰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어형이고, ‘고미내’는 ‘곰내’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곰의내’로부터 ‘-나>ㅣ’ 변화를 거친 어형이다. 그러므로 ‘고음내’나 ‘고미내’도 ‘곰내’와 같이 ‘큰 내’로 해석된다.

‘곰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곰내’ 가를 따라 형성된 마을을 그렇게 부르는데 ‘곰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곰내’는 ‘곰내골, 곰내못, 곰내재, 곰내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2.7. 까치내

‘까치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까치’를 ‘鵲’의 뜻으로 보고, ‘까치가 많이

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고드내’와 같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8) 충남 당진군 대호지면 송전리 소재 ‘고지내’가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고지내’는 마중리 자모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곧게 흘러 송전리를 지나 바다로 들어간다.

날아오는 내'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鶺鴒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쓴다. 그러나 '내'와 '까치'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까치내'의 '까치'는 다른 어형으로부터 변형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까치내'라는 내 이름이 '가지내'라는 고유어 지명 및 '枝川'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쓰이기도 하는 것을 보면) '까치내'의 '까치'가 '鶺鴒'의 그것이야 아닐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까치내'의 '까치'는 '가지'의 변형이고, '가지'는 '枝'의 뜻으로 판단된다.

'가지내'에도 '枝川' 또는 '之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¹⁰⁾ 이는 '가지내'의 '가지'가 '枝'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려 준다. 이렇게 보면 '가지내'는 '물줄기가 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내'로 해석된다.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 내가 된다. '가지내'가 '물줄기가 分岐하는 내'라면 이것에서 변한 '까치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¹¹⁾ '까치내'에 결부되어 있는 '까치'와 관련된 유래 설은 '가지내'가 '까치내'를 거쳐¹²⁾ '까치내'로 변하면서 형태적 유연성이 상실되면서 생겨난 것이다.

'까치내'는 내 이름이지만 들이나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에 인접한 들이나 마을을 후행 요소 '들',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까치내들'이라는 완성형 들 이름도 쓰인다.

9) 충남 청양군 적곡면 소재 '까치내'는 '가지내'와 함께 쓰이며, 충남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소재 '까치내'는 '枝川' 내지 '之川'과 함께 쓰인다.

10) 물론 '가지내'에는 '鶺鴒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더 적극적으로 결부된다. '가지내'의 '가지'가 '鶺鴒'의 방언 '까치'와 어형이 유사한 나머지 '鶺鴒'으로 訓借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1) 물론 '까치내'의 '까치'가 '아치'에서 온 것이라면 '까치내'는 '작은 내'로 해석되어야 한다. 실제 '아치내'도 존재하는데, '아치내'의 '아치'는 '얕[少]'과 관련된 어형으로 추정된다.

12) '가지내'가 '까치내'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지'가 '까치'의 방언인 '까치'와 어형이 유사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2.8. 넙내

‘넙내’의 ‘넙’은 형용사 어간 ‘넙-[廣]’이다. 현대국어에서 ‘넙-[廣]’은 쓰이지 않지만 중세국어는 물론이고 근대국어까지도 ‘너르-’와 함께 ‘廣’의 뜻으로 적극적으로 쓰였다. ‘넙-’은 그 흔적을 ‘넙내’를 비롯한 ‘넙고개, 넙바우, 넙산’ 등과 같은 지명에 남기고 있다. ‘넙내’의 ‘넙-’이 ‘廣’의 뜻이므로 ‘넙내’는 ‘넓은 내’로 해석된다. 이에는 ‘廣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넙내’는 제1음절의 받침 ‘ㅂ’이 ‘ㄱ’으로 교체되어 ‘넉내’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넙고개’가 ‘넉고개’, ‘넙바우’가 ‘넉바우’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넓은 내’는 지역에 따라 ‘너린내, 너벽내, 너봉내, 너부내, 너분내, 너븐내, 너브내’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너린내’는 ‘너른내’의 모음 변화형이고, ‘너븐내’는 ‘넙-’의 관형사형과 ‘내’가 결합된 어형이므로 그 어원과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아울러 ‘너븐내’에서 ‘ㄴ’이 탈락한 ‘너브내’나 ‘너븐내’의 모음 변화형 ‘너분내’의 경우도 그 어원과 의미 파악에 문제가 없다. 다만 ‘너벽내’의 ‘너벽’이나 ‘너봉내’의 ‘너봉’¹³⁾은 ‘넙-’과 관련된 어형임은 분명하지만 그 형태 분석이 쉽지 않아 어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넙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넙내’는 ‘넙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넙내’는 ‘넙내보, 넙넛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쓰인다.

2.9. 달내

‘달내’의 ‘달’에 대해서는 ‘月’ 또는 ‘鷄’의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月’의 뜻으로 이해하는 지역에서는 ‘달내’를 ‘반달처럼 생긴 내’나 ‘달빛이 잘 비치는 내’ 등으로 해석하고, ‘鷄’의 뜻으로 이해하는 지역에서

13) 지명의 선행 요소 ‘너봉’은 ‘너병’의 모음 변화형이다. ‘너병’은 ‘너병날, 너병바우, 너병배미, 너병보, 너병여’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는 ‘너벽내, 너벽들, 너벽바우’ 등에 보이는 ‘너벽’과 형태상 관련된다.

는 ‘달내’를 ‘닭의 형상을 하고 있는 내’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月川’, ‘月溪’, ‘達川’, ‘酉川’ 등의 한자 지명을 함께 쓴다. 그러나 이들 해석은 취하기 어렵다. 하천 이름에 ‘月’의 ‘달’이나 ‘鷄’의 ‘닭’을 이용할 만큼 ‘내’가 ‘달’이나 ‘닭’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달’을 ‘들[野]’과 관련된 어형으로 보고, ‘달내’를 ‘들판을 흐르는 내’로 해석하기도 한다. ‘달’이 ‘너븐달(넓은 들)’, ‘방아달(방아처럼 생긴 들)’, ‘달안이(들 안쪽에 있는 마을)’ 등에서 보듯 ‘野’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 ‘달내’의 ‘달’은 ‘野’보다는 ‘山’, ‘高’를 뜻하는 ‘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달내’는 ‘산을 흐르는 내’ 또는 ‘높은 지대를 흐르는 내’로 해석된다. 대체로 ‘달내’가 지대가 높은 상류 지역을 흐르고 있어 이러한 해석이 아주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달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 내에 인접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10. 독내

‘독내’의 ‘독’은 ‘돌[石]’의 방언이다. 그러므로 ‘독내’는 ‘돌이 많은 내’의 뜻이다. 냇바닥에 돌이 많이 깔려 있는 내를 그렇게 부른다. ‘독내’와 ‘돌내’가 함께 쓰이는 지역도 있어 ‘독내’가 ‘돌내’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독내’와 ‘돌내’에는 ‘石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한자 지명 ‘석천’은 제2음절의 모음이 변하여 ‘석촌’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돌내’에는 ‘돌’을 ‘石’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동사 어간 ‘돌-[回]’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 구별을 요한다. ‘돌’이 동사 어간 ‘돌-[回]’인 ‘돌내’는 ‘돌아 흐르는 내’의 뜻이다. 냇물이 마을을 돌아 흐르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돌내’에는 ‘回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돌내’는 ‘뚝내’로 나타나기도 한다. ‘뚝내’는 ‘돌내’에 속격의 ‘-ㅅ’이 개재된 ‘뚝내’에서 ‘ㅅ’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다. 따라서 ‘뚝내’ 또한 ‘돌이 많은 내’나 ‘돌아 흐르는 내’로 해석된다.

‘독내’나 ‘돌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11. 두내바지내

‘두내바지내’는 ‘두내바지’와 ‘내’로 분석된다. ‘두내바지’는 ‘두내바지들’, ‘두내바지보’ 등에서도 확인된다. ‘두내바지’는 ‘두내’와 ‘바지’로 분석된다. ‘두내’는 ‘두 갈래 물줄기의 내’의 뜻이다. 그런데 ‘두내’는 ‘斗川’, ‘斗內’ 등의 한자 지명과 함께 주로 마을 이름으로 쓰인다. 이들 마을이 두 내가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내’는 ‘二川’이나 ‘이내(二-)’로 바꿀 수 있다.

‘바지’는 ‘받-[受]’에서 파생된 ‘받이’의 구개음화 어형이다. 주로 ‘두내’와 어울려 ‘두내바지’로 쓰이며, 두 냇물이 합쳐지는 아래쪽 지역을 특별히 가리킨다. 두 갈래 물줄기가 합쳐지는 내가 바로 ‘두내바지내’이다. 후행 요소 ‘내’가 생략된 ‘두내바지’로 더 많이 쓰인다.

2.12. 마내

‘마내’는 ‘말내’에서 제1음절의 받침 ‘ㄴ’이 ‘ㄹ’ 앞에서 탈락한 어형이다. ‘마내’에 대응된 ‘馬川’, ‘斗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해 ‘마내’가 본래 ‘말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말내’의 ‘말’이 ‘馬’나 ‘斗’의 뜻은 아니다. ‘말내’의 ‘말’은 ‘大’의 뜻이다.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말’은 ‘말고개, 말골, 말무덤’ 등에서 보듯 ‘大’의 뜻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말내’가 ‘큰 내’의 뜻이라면 ‘말내’에서 변한 ‘마내’도 그와 같은 뜻이다.

‘마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2.13. 머내

‘머내’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먼내(또는 ‘멀내’), 둘째는 ‘머흘내’, 셋째는 ‘머귀내’에서 변한 것이다. 이중 ‘먼내’에서 변한 ‘머내’가 가장 흔하다.

‘먼내’의 ‘먼’은 ‘멀-遠’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먼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로 해석된다. 마을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 ‘먼내’에서 동음 ‘ㄴ’이 탈락하거나 ‘멀내’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한 어형이 ‘머내’이다. ‘머내’가 ‘먼내’나 ‘멀내’와 함께 쓰이기도 하고, ‘머내’에 ‘遠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머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내’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머흘내’의 ‘머흘-’은 ‘險’의 뜻이다. 형용사 ‘머흘-’은 중세국어 이래 근대국어까지 그 용례를 보이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다. ‘머흘-’이 ‘險’의 뜻이므로 이를 포함하는 ‘머흘내’는 ‘험한 내’로 해석된다. 냇가의 지형이 험하거나 물살이 세어 거친 내를 그렇게 부른다. ‘險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제격이다. 이 ‘머흘내’에서 ‘ㄴ’ 앞의 ‘ㄹ’이 탈락하여 ‘머흐내’가 되고, ‘머흐내’에서 ‘ㅎ’이 탈락하여 ‘머으내’가 된 다음 제2음절의 ‘으’가 탈락하여 ‘머내’가 된 것이다. ‘머흘내’가 ‘험한 내’의 뜻이므로 유사 지명 ‘머흐내, 머으내, 머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머귀내’의 ‘머귀’는 ‘오동나무’의 뜻이다. 그러므로 ‘머귀내’는 ‘오동나무가 있는 내’로 해석된다. ‘머귀내’에서 반모음 ‘ㅣ’가 탈락하여 ‘머구내’가 되고, ‘머구내’에서 ‘ㄱ’이 약화되어 ‘머우내’가 된 다음 ‘우’가 탈락하여 ‘머내’가 된 것이다. 전국에 ‘머귀내’는 물론이고 ‘머구내’와 ‘머우내’가 실재하며 ‘梧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머구내’와 ‘머우내’가 ‘오동나무가 있는 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머내’에도 ‘梧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는데, 이로써 ‘머내’가 ‘머귀내’까지 소급하며 또 ‘오동나무가 있는 내’임이 드러난다.

‘머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 더 많이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머내’는 ‘머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머내’는 ‘머내고개, 머내골, 머내다리, 머내산, 머내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적극적으로 쓰인다.

2.14. 버드내

‘버드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버드’를 ‘버들’로 보고 ‘버드나무가 있는 내’로 설명한다. 이에 따라 ‘柳川’, ‘柳浦’ 등의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만약 ‘버드’가 ‘버들’에서 온 것이라면 ‘버드내’는 ‘버들내’로 소급한다. 실제 ‘버들내’라는 지명이 존재하고, ‘ㄴ’ 앞에서 ‘ㄹ’이 탈락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버드내’가 ‘버들내’와 같이 ‘버드나무가 있는 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버드내’가 ‘변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버드내’는 ‘버드나무’와는 무관하다. ‘변내’와 함께 나타나는 ‘버드내’는 ‘변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어형이거나 ‘버든내’에서 제2 음절의 받침 ‘ㄴ’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변내’의 ‘변’은 동사 어간 ‘변-’이고, ‘버든내’의 ‘버든’은 ‘변-’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변내’와 ‘버든내’는 모두 ‘곧게 뻗은 내’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들 ‘변내’ 또는 ‘버든내’에서 변한 ‘버드내’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이렇게 보면, ‘버드내’에는 ‘버들내’ 또는 ‘변내’와 ‘버든내’에서 변한 세 종류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버드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많이 쓰인다. 냇가에 자리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버드내’는 ‘버드내골, 버드내방죽, 버드내보, 버드내들’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2.15. 비끼내

‘비끼내’는 ‘비끼’와 ‘내’로 분석된다. ‘비끼’는 동사 어간 ‘비끼-[斜, 橫]’이다. ‘비끼-’는 ‘비끼내’를 비롯하여 ‘비끼논, 비끼미, 비끼섬, 비끼재’ 등에

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이며, ‘비스듬한 형상’을 지시한다. 그리하여 ‘비끼내’는 ‘비긴 형상의 내’로 해석된다. 내가 직선으로 뻗어 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비스듬히 꺾어지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지점에 와서 냇물은 비스듬히 流路를 틀어 흐르게 된다. ‘비끼내’에 대응되어 있는 ‘斜川’이나 ‘橫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해 ‘비끼내’가 어떤 모양의 하천인가를 잘 알 수 있다.

‘비껴 흐르는 내’는 ‘비끼내’뿐만 아니라 ‘빗내, 빈내, 비스내’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빗내’의 ‘빗-’은 중세국어 ‘뵈-(비뚫다, 가로 되다)’으로 소급한다. ‘뵈내’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해 ‘빗내’로 표기된 것이다. 그리고 ‘빗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되어 ‘비스내’가 되고, ‘빗내’가 자음 동화에 의해 ‘빈내’가 된 것이다.

‘빗내’에는 ‘橫川’이라는 한자 지명과 함께 ‘光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기도 하다. ‘光川’은 ‘빗내’의 ‘빗’을 ‘빛[光]’으로 오해한 결과 결부된 한자 지명이다. 어떤 지역에서는 ‘光’의 의미를 부각하여 ‘빗내’를 ‘빛내’로까지 표기하고 있다.

‘빗내’가 ‘빈내’로 표기되자 ‘빈’과 ‘뵈-’과의 유연성은 완전히 상실된다. 그 결과 ‘빈내’를 동일 음상의 한자나 유사 음상의 한자를 이용하여 ‘賓川’, ‘빈내(賓-), ‘飛川’ 등으로 바꾸어 쓰고 있다.

‘비끼내’는 내 이름이지만 마을 이름으로도 쓰인다.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말’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비끼내’는 ‘비끼내고개, 비끼내들, 비끼내모퉁이, 비끼내보’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 적극적으로 쓰인다.

2.16. 산이내

‘산이내’는 ‘산의내’에서 ‘-나>ㅣ’ 변화를 겪은 어형이다. ‘산의내’는 ‘산내’에 속격의 ‘-의’가 개재되어 어형이 확대된 지명이다.¹⁴⁾ 말하자면 ‘산내’가 ‘산의내’를 거쳐 ‘산이내’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은 ‘달골>달의

골>다리골’, ‘말골>말의골>마리골’, ‘살골>살의골>사리골’ 등에서 보듯 아주 규칙적이다.

‘산내’의 ‘산’은 ‘山’이어서 ‘산내’는 ‘산을 흐르는 내’의 뜻이다. ‘퇴내’와 같은 의미이다. 아울러 ‘산내’에 ‘-의’가 개재된 ‘산의내’나 이것에서 ‘-니>이’ 변화를 거친 ‘산이내’ 또한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산이내’는 내 이름이지만 이 내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마을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산이내’는 ‘산이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2.17. 서답내

‘서답내’는 ‘서답’과 ‘내’로 분석된다. ‘서답’은 ‘빨래’의 뜻이다. ‘서답골, 서답바우, 서답보, 서답소’ 등에 보이는 ‘서답’도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서답내’는 ‘빨래를 하는 내’의 뜻이다. 공동으로 빨래를 할 수 있는 빨래터가 있는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서답내’가 있다면 ‘빨래’를 이용한 ‘빨래내’라는 지명도 있을 듯한데 이러한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지 ‘빨래개울’이라는 내 이름이 존재할 뿐이다. ‘빨래’의 ‘래’와 ‘川’의 ‘내’가 음이 유사하여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빨래’와 ‘내’의 결합을 기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서답내’에서 빨랫감을 올려놓고 빨래를 하는 바위가 ‘서답바위’이다.

‘서답내’는 내 이름이지만 이 내가 흐르는 들이나 이 내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마을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들 이름으로서의 ‘서답내’는 ‘서답내들’에서 ‘들’이, 마을 이름으로서의 ‘서답내’는 ‘서답내말’에서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14) ‘산의거리, 산의말, 산의실’ 등에서도 속격의 ‘-의’가 확인된다. 이들은 ‘산거리, 산말, 산실’ 등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어형이다.

2.18. 솔내

‘솔내’의 유래에 대해서는 대체로 ‘솔’을 ‘松’의 뜻으로 보고 ‘소나무가 많은 내’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松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대응한다. 그런데 ‘솔내’의 ‘솔’은 ‘松’의 ‘솔’이 아니라 형용사 어간 ‘솔-[狹]’일 가능성도 있다. ‘솔고개, 솔골, 솔재’ 등에 보이는 ‘솔’도 대체로 ‘松’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 또한 ‘狹’의 ‘솔-’일 가능성이 있다. 형용사 ‘솔-’이 ‘좁-’에 밀려나 잘 쓰이지 않게 되자 지명의 선행 요소로 이용된 ‘솔-’까지도 음상이 같은 ‘松’의 ‘솔’로 잘못 이해한 것일 수 있다. 물론 지명의 선행 요소로 나타나는 ‘솔’에는 ‘松’을 지시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솔내’의 ‘솔’이 ‘狹’의 ‘솔-’이라면 ‘솔내’는 ‘좁은 내’로 해석된다.

‘솔내’는 ‘소리내’로 변하기도 한다. ‘소리내’는 ‘솔내’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솔의내’가 ‘-니>ㅣ’ 변화에 따라 나타난 어형이다. 앞서 살핀 ‘산이내’와 같은 변화 과정을 거친 것이다.

‘솔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이 내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마을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솔내’는 ‘솔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2.19. 여내

‘여내’에는 ‘여우내, 여호내, 예내’와 같은 俗地名과 ‘乾川, 弧川, 禮川’ 등과 같은 한자 지명이 다수 대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내’가 속지명 ‘여우내’나 ‘여호내’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내’는 ‘여우내’나 ‘여호내’에서 제2음절의 ‘우’나 ‘호’가 탈락한 어형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여우내’에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것은 ‘여호내’는 단지 ‘여우내’의 ‘여우’를 ‘弧’로 잘못 인식하고 그것을 ‘여우’와 같은 의미의 방언 ‘여호’로 바꾼 지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국에 ‘여우내’라는 내 이름이 ‘여내’보다 더 많다. ‘여우내’에 대해서

는 ‘如雨川, 如意川, 如雲川, 乾川’ 등의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다. 이들 한자 지명에 쓰인 ‘如雨, 如意, 如雲’ 등은 ‘여우’와 단지 음상이 같거나 유사한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뿐이어서 ‘여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반면 ‘乾川’의 ‘乾’은 ‘여우’의 의미를 고려한 訓借 표기라는 점에서 ‘여우’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우내’의 ‘여우’가 ‘乾’의 뜻이라면 ‘여우’는 중세국어의 ‘여위-’와 관련된 어형임이 분명하다. ‘여위-’는 지금은 ‘수척하다’의 의미로만 쓰이고 있으나, 중세국어에서는 ‘수척하다’와 더불어 ‘마르다[乾, 渴]’의 의미로도 쓰였다. 그리하여 “물이 다 마르고”라는 표현은 “물이 다 여위오”로 표현할 수 있었다. 중세국어 ‘여위-’가 지니던 ‘乾, 渴’의 의미는 겨우 지명 ‘여우내’의 ‘여우-’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로 보면 ‘여우내’는 ‘여위내’로 소급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행 요소 ‘여위-’의 의미를 고려하면 ‘여위내’는 ‘마른 내’로 해석된다. 내의 바다에 돌이나 모래가 많아 넷물이 늘 말라 있는 내를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이는 ‘건내(乾-), 마른내’ 등과 같은 의미이다. 물론 ‘여위내’에서 변한 ‘여우내’도 ‘물이 메마른 내’로 해석된다. ‘여위내’가 ‘여우내’로 어형이 변하면서 ‘여우-’의 有緣性이 상실되자 ‘여우-’를 음이 같거나 유사한 한자로 바꾸기도 하고, ‘여우-’를 ‘弧’의 ‘여우’로 이해한 뒤 ‘여호내’ 또는 ‘弧川’으로 바꾸기도 한 것이다.

‘여우내’가 ‘여내’로 축약되면서 ‘여위-’와의 유연성은 더 멀어지게 된다. ‘여내’에 ‘ㅣ’가 첨가되어 ‘예내’로까지 변할 수 있었던 것이나 그 ‘예내’를 ‘禮川’이라는 한자 지명으로 바꾼 것은 유연성 상실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여우-’에 대한 어원 의식이 살아 있던 시기에 결부된 ‘여우내’에 대한 ‘乾川’이라는 한자 지명, 그리고 ‘여우내’가 ‘여내’로 어형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 남은 ‘乾川’이라는 한자 지명을 통하여 ‘여우내’나 ‘여내’가 ‘마른 내’임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여우내’나 ‘여내, 예내’는 본래 내 이름이지만 마을은 물론이고 골짜기

나 들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이나 이 내가 흐르는 골짜기나 들을 그렇게 부른다. 이들 마을, 골짜기, 들 이름으로 쓰이는 ‘여우내, 여내, 예내’는 후행 요소 ‘말, 골, 들’ 등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2.20. 지프내

‘지프내’는 ‘기픈내’로 소급한다. ‘기픈내’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픈내’로 변한 다음 ‘ㄴ’ 탈락에 의해 ‘지프내’가 된 것이다. ‘기픈내’의 ‘기픈’은 ‘깊-[深]’의 관형사형이다. 그러므로 ‘기픈내’는 ‘수심이 깊은 내’의 뜻이다. ‘深川’이라는 한자 지명과 부합한다. 아울러 ‘기픈내’에서 변한 ‘지픈내’나 ‘지프내’도 ‘수심이 깊은 내’로 해석된다. ‘지프내’에도 ‘深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되어 있어 그 뜻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지프내’는 내 이름과 더불어 골짜기, 들, 마을 등의 이름으로도 쓰인다. 이 내가 흐르는 골짜기나 들, 그리고 이 내를 따라 조성된 마을을 후행 요소 ‘골’, ‘들’, ‘말’ 등을 생략한 채 그렇게 부른다. 물론 ‘지프내골’, ‘지프내들’ 등과 같은 완성형 지명도 함께 쓰인다.

2.21. 하내

‘하내’는 ‘한내’에서 ‘ㄴ’이 탈락한 어형이다. ‘하내’가 ‘한내’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므로¹⁵⁾ 그것과의 관계는 분명하다. ‘하내’보다는 ‘한내’가 더 많이 쓰인다.

‘한내’의 ‘한’은 ‘하-[大, 多]’의 관형사형이다. ‘한골, 한고개, 한들, 한뫼, 한밭, 한배미, 한샘, 한실’ 등에 보이는 ‘한’과 같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내’는 ‘큰 내’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내’에서 변한 ‘하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한내’나 ‘하내’에는 ‘大川’이라는 한자 지명이 대응된다.

15) 경남 창원군 증산면 증산리 소재 ‘하내’가 그러한 예이다.

‘하내’는 내 이름이지만 이 내의 가장자리에 조성된 마을을 가리키기도 한다. 마을 이름으로서의 ‘하내’는 ‘하내말’에서 후행 요소 ‘말’이 생략된 어형으로 간주된다. ‘하내’는 ‘하내들, 하내바우’ 등에서 보듯 지명의 선행 요소로도 쓰인다.

3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가느내’는 ‘가는내’의 ‘ㄴ’ 탈락형으로 ‘가늘고 긴 내’의 뜻이다.
- (2) ‘가르내’는 ‘가르-[分]’와 ‘내’로 분석되며, ‘물줄기가 갈라지는 내’의 뜻이다.
- (3) ‘가무내’는 ‘감내’에 조음소 ‘으’가 개재된 ‘가므내’의 원순모음화 어형이다. ‘감내’가 ‘검은빛의 내’의 뜻이므로 ‘가무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 (4) ‘고내’는 ‘골내’로 소급하는 것과 ‘곶내’로 소급하는 것, 두 종류이다. 전자의 ‘고내’는 ‘골짜기를 흐르는 내’, 후자의 ‘고내’는 ‘곶을 따라 흐르는 내’의 뜻이다.
- (5) ‘고드내’는 ‘고든내’의 ‘ㄴ’ 탈락형이다. ‘고든내’가 ‘꿈게 뺀 내’의 뜻이므로 ‘고드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 (6) ‘곰내’의 ‘곰’은 ‘大’의 뜻이다. 그러므로 ‘곰내’는 ‘큰 내’로 해석된다.
- (7) ‘까치내’는 ‘가지내’가 ‘가치내’를 거쳐 나타난 어형이다. ‘가지내’가 ‘가지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진 형상의 내’의 뜻이므로 ‘까치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 (8) ‘넙내’의 ‘넙’은 형용사 어간 ‘넙-[廣]’이다. 그러므로 ‘넙내’는 ‘넓은 내’의 뜻이다.

- (9) ‘달내’의 ‘달’은 ‘山’, ‘高’의 뜻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달내’는 ‘산을 흐르는 내’ 또는 ‘높은 지대를 흐르는 내’로 해석할 수 있다.
- (10) ‘독내’의 ‘독’은 ‘돌[石]’의 방언이다. 그러므로 ‘독내’는 ‘돌내’와 같이 ‘돌이 많은 내’로 해석된다.
- (11) ‘두내바지내’는 ‘두내바지’와 ‘내’로 분석되며 ‘두 물줄기가 합수되는 내’의 뜻이다.
- (12) ‘마내’는 ‘말내’의 ‘큰’ 탈락형이다. ‘말내’가 ‘큰 내’의 뜻이므로 ‘마내’ 또한 그러한 의미이다.
- (13) ‘머내’는 ‘먼내’, ‘머흘내’, ‘머귀내’에서 변한 세 종류가 있다. 이에 따라 ‘머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내’, ‘힘한 내’, ‘오동나무가 있는 내’로 해석된다.
- (14) ‘버드내’는 ‘버들내’에서 변한 것과 ‘별내’ 또는 ‘버든내’에서 변형된 것이 있다. 전자의 ‘버드내’는 ‘버드나무가 있는 내’로 해석되고, 후자의 ‘버드내’는 ‘곧게 뻗은 내’로 해석된다.
- (15) ‘비끼내’의 ‘비끼’는 형용사 어간 ‘비끼-[斜, 橫]’이다. 그러므로 ‘비끼내’는 ‘비스듬히 꺾인 형상의 내’의 뜻이다.
- (16) ‘산이내’는 ‘산의내’의 변화형이고, ‘산의내’는 ‘산내’에 속격의 ‘-의’가 개재된 어형이다. ‘산내’가 ‘산을 흐르는 내’의 뜻이므로 ‘산의내’나 ‘산이내’도 그와 같은 의미를 띤다.
- (17) ‘서답내’의 ‘서답’은 ‘빨래’의 뜻이다. 그러므로 ‘서답내’는 ‘빨래를 하는 내’의 뜻이다.
- (18) ‘술내’에 대해서는 대체로 ‘술’을 ‘소나무’로 보고 ‘소나무가 많은 내’로 해석한다. 그런데 ‘술’은 형용사 어간 ‘술-[狹]’일 가능성이 있어, ‘술내’는 ‘좁은 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 (19) ‘여내’는 ‘여우내’에서 제2음절의 모음 ‘우’가 탈락한 어형이며, ‘여위내’는 ‘여위내’에서 반모음 ‘ㅣ’가 탈락한 어형이다. ‘여위내’가 ‘마른 내’의 뜻이므로 ‘여우내’나 ‘여내’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이다.

- (20) ‘지프내’는 ‘기픈내’로 소급한다. ‘기픈내’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픈내’로 변하고 이어서 ‘ㄴ’이 탈락하여 ‘지프내’가 된 것이다. ‘기픈내’가 ‘수심이 깊은 내’의 뜻이므로 ‘지픈내’나 ‘지프내’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이다.
- (21) ‘하내’는 ‘한내’의 ‘ㄴ’ 탈락형이다. ‘한내’가 ‘큰 내’의 뜻이므로 ‘하내’ 또한 그와 같은 의미이다.

참 고 문 헌

- 김규남·이길재(2002), 지명으로 보는 전주 100년, 신아출판사.
- 김진식(1997), ‘까치내’의 어원 고찰, 어문연구 29집, 충남대어문연구회.
- 배우리(1994), 우리 땅이름의 뿌리를 찾아서①, ②, 토담.
- 趙康奉(2002), 江·河川의 合流와 分岐處의 地名研究, 전남대박사학위논문.
- 조항범(2001), ‘地名 語源 辭典’ 편찬을 위한 예비적 고찰, 지명학6.
- 조항범(2002), 地名 語源 몇 가지(1), 새국어생활 제13권 제3호, 국립국어연구원.
- 조항범(2003), 지명 어원 몇 가지(2), 새국어생활, 제13권 제4호, 국립국어연구원.
- 한글학회(1966-1986), 한국 지명 총람.
- 한글학회(1991), 한국땅이름큰사전(상)(중)(하).